特　輯

Spain의 肥料工業의 再建計劃推進과 成功展望

Spain의 肥料工業은 EEC會員의 必然的인 結果로서 自體競爭力 强化를 위해서 過去 2年半 以上 準備해 왔다.

非效率的인 工場들이 폐쇄되었으며 암모니아 生產費用을 더욱 競爭的인 水準으로 減少시키기 위한 投資가 進行中이다. 그러나 몇몇 根本的인 어려움이 남아 있는데 이는 肥料工業의 再建過程이 아직 完成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1986年1月, Spain이 EEC에 加入하기 前까지는 Spain의 經濟가 유럽의 다른나라와 전 世界로 부터 고립되어 運營되어 왔다. 여러 分野의 產業이 强力한 關稅障壁에 의해서 保護를 받아왔으며 그렇지 못해 살아남을수 없었던 產業은 豊富한 政府 補助로 支援을 받았다. Spain肥料工業이 이같은 範圍內에 있었다.

輸入 암모니아의 需要成長과는 별도로 그리고 西歐北部地方에 대한 少量의 窒酸암모늄 輸出과도 別途로, 世界肥料市場에 對한 Spain의 參與는 制限的이었다.

結果的으로 國內肥料工業은 國際競爭力이 없는 線을 따라 成長했다.

주로 輸入납사에 依存하는 암모니아 原料費用이 높았으며 稼動率은 낮은 狀態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1980年 以後 Spain의 肥料製造會社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運轉을 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1981年과 1983年사이, 3個年 동안의 한발로 肥料消費는 大幅 감소되었다.

3年동안에 窒素質 消費는 12%까지 減少되었으며 燐酸質과 加里質 消費는 23%까지 減少되었다.

肥質別로 본 肥料生產도 역시 減少했다. 例를 들면 窒素質 生產은 14%까지 減少했는데 더욱이 稼動率도 이미 惡化되었다. 國內需要가 減少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납사原料費用도 上昇되었으며 Dollar貨의 强勢가 輸入 암모니아의 Peseta(貨)費用을 올려 놓았다.

따라서 Spain의 EEC會員加入 時期가 가까이 옴에 따라, 肥料工業은 Spain의 關稅障壁의 段階的인 제거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價格의 유럽生產業者들로 부터의 競爭을 견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다.

例를 들면 Union Explosivos Rio Tinto(ERT)社는 16億$의 빚을 안고 있었으며 技術的으로는 파산자이었다.

대체적으로 Spain의 肥料工業은 빚이 資產을 훨씬 초과한 狀態에 있으며 그같은 빚의 이자는 販賣收益의 約15%를 차지했다.

o 未來計劃

이같은 狀況이 初期段階에서 알려진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1984年 政府는 肥料工業의 利益과 또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成功的으로 統合시키기 위해 評價基準의 設定事業과 함께 부과된 獨自的인 調査를 遂行했다. 調査結果와 그리고 뒤이어 團體, 經營者 및 政府와

의 사이에 있었던 協商結果, 높고 적당한 稼動率로 運轉하는것에 기준을 두어 生產能力을 減縮하는 方向으로 計劃을 세웠다.

窒素質 肥料分野에서 旣存 生產能力은 事實上 지금까지는 1990年의 計劃된 消費量 960,000 Nt/a과 一致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첫째가 輸入납사 原料에 의지하는 높은 암모니아 生產原價로서 파악되었으며, 둘째는 黃酸암모늄과 窒安石灰(CAN)와 같이 窒素質 成分이 낮은 肥料를 높은 生產費用으로 生產하는 工場들이 規模가 적고 老朽化된 工場으로써 이들 工場들의 수가 많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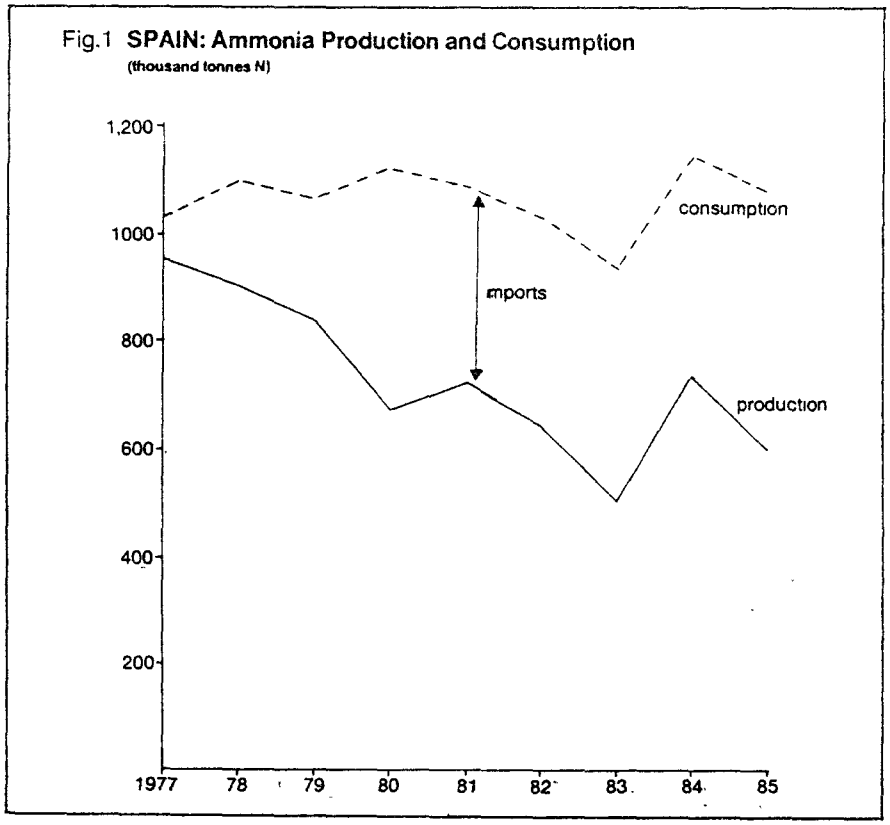
肥料計劃下에서 이같은 少規模 窒素質 單肥工場들 가운데 6個工場이 폐기되었거나 폐기중에 있으며 이들의 生產能力은 193,000 N t/a에 해당된다.

同時에 年產能力 122,000 Nt/a의 窒酸암모늄工場과 247,000 Nt/a의 窒素工場이 Valencia近處 Sagunto에서 完工段階에 있다.

이같은 方法으로 窒素質 單肥를 生產할 수 있는 Spain의 生產能力은 1990年의 豫想되는 需要量 960,000 N t/a를 充足시킬 작정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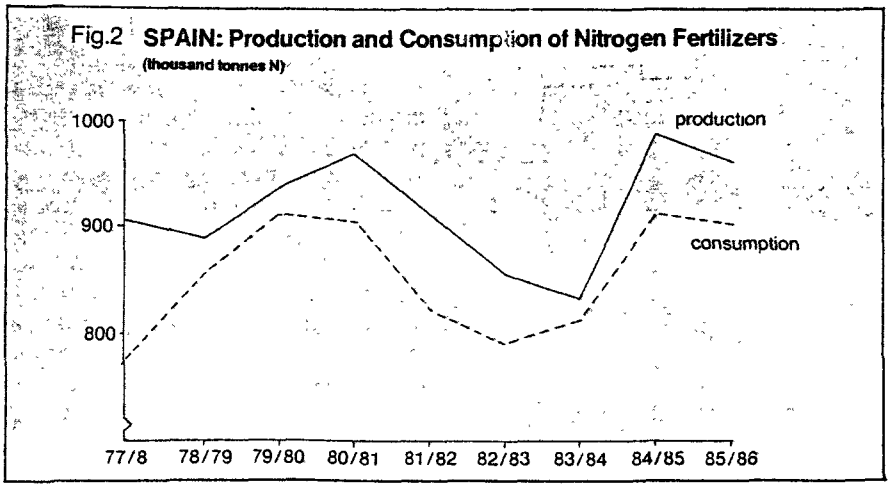
암모니아 分野에서는 SA Cros가 所有하고 있는 두개의 工場들, 즉 Malaga에 位置한 100,000 Nt/a規模와 Elvina에 位置한 88,000Nt/a規模의 工場들이 폐쇄되었다. 結局, Cros社는 Spain에서 암모니아 生產을 中斷했다.

또한 政府所有인 Empresa Nacional de Fertilizantes SA(Enfersa)에 속해 있으며 Puentes de Gercia Rodriguez에 있는 98,000Nt/a規模의 암모니아工場과 ERT의 71,000N t/a規模의 Huelva I工場 等 2個의 工場이 數年동안 稼動을 쉬었다가 영구히 폐쇄시켰다. 總括的으로, 이들 工場들의 폐쇄조치로 282,000Nt/a의 암모니아 生產能力이 減縮되었으며 ERT



의 Huelva Ⅱ工場과 Enfersa의 Puertollano工場, Aviles工場 그리고 Cartagena工場들만이 生産에 參與하고 있다. 추가로 ERT의 Huelva工場과 Enfersa의 Cartagena工場의 工程을 납사에서 天然개스로 전환시키는데 約 10 億 Pta 를 投資암모니아 生産費用을 減少시키는데 投資할 計劃이다. Huelva工場은 수소회수공정을 함께 설치할 것이며 그래서 生産能力을 增大시키고 수소消費를 約 15 %까지 減少시킬 것이다.

일단 投資가 끝나는 내년초에 Spain의 암모니아 生産能力은 모두 735,000 Nt/a에 달할것이며 이는 年間 암모니아 需要量의 절반가량으로 不足量은 輸入에 依해 供給될 것이다.



○ 法人의 統合計劃

再建計劃下에 要求되는 工場폐쇄와 投資가 만일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었다면 역시 計劃下에 있던 資產交換도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주요 爭點의 하나는 여러 會社들이 그들의 資產을 交換하거나 賣却할 計劃下에 두고 價置評價하는 것이었다. 例를 들면 Enfersa는 Cartagena에서 Abonos Complejos del Sureste (Asur)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生產能力 500,000 Nt/a의 NPK 工場에서 ERT의 株式 50%를 獲得할 計劃이었다.

이미 나머지 50%도 所有하고 있었던 Enfersa는 ERT의 株式을 約35億Ptas에 評價한 反面에 ERT는 約60億Ptas로 보았다 이 協約에 대한 교착상태는 ERT가 Sagunto에 位置한 Enfersa의 新規 窒酸/窒酸암모늄工場 支分 50%를 獲得하려던 호혜협정을 지연시켰다.

한순간에 全體 再建計劃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는것 같

았을때 政府가 할수없이 개재했다.

이 問題는 ERT가 Asur 社 支分을 30 ~ 35 億 Ptas에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Enfersa는 Sagunto工場의 支分 반을 40億 Ptas에 받아들이기로 合意함으로써 해결을 보게 되었다. 이들 두 交換에 관한 연장된 討論이 두 主要 民間 肥料會社인 ERT와 Cros의 肥料運營을 統合시키려는 計劃을 지연시켜 왔다.

이같은 統合의 目的은 ERT의 製造能力과 Cros의 販賣能力사이에 있는 共同作用力을 利用하여 Spain市場의 65%인 約 5,000 億弗의 販賣高를 담당할 會社를 設立하고 世界무대에서 成功的인 競爭力을 갖게하려는 것이다.

統合計劃下에서 두會社는 新規合作會社의 資產 50%씩에 投資하겠지만 Cros社가 그의 파트너보다 많은 少規模工場을 運營하고 있어 이 目的은 처음부터 實現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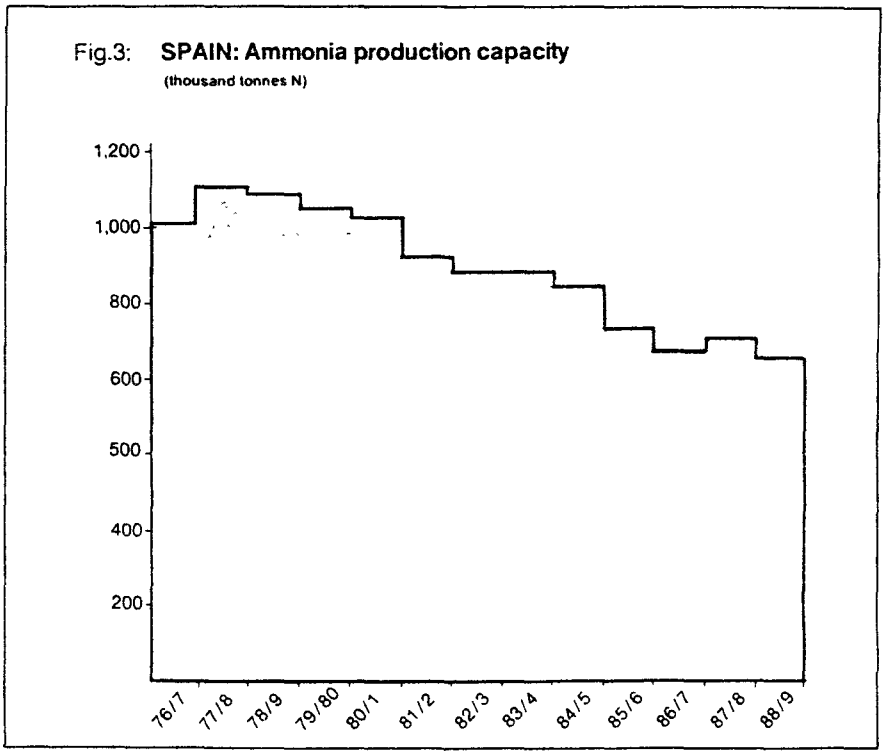
이 計劃에 대한 最終的인 調整作業이 아직까지 進行되고 있으나 統合의 매개물은 Fosforico Espanol에서의 두 會社의 所有株式이 될것 같은데 Fosforico Espanol社는 ERT와 Cros社가 各各 50%씩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으며 Huelva에 位置하여 燐酸, 黃酸, DAP를 生產하고 있는 少規模會社이다. 만일 去來가 순조롭게 지속된다면 擴大된 Fosforico Espanol은 두會社(Exfersa에 販賣키로 되어있는 Cros의 Seville所在 San Jeronimo工場도 당연히 包含)의 모든 肥料資產을 合併하게 될 것이며 ERT가 75%, Cros가 25%를 所有하게 된다.

○ 充分치 못할지도 모름

工場폐쇄와 資產交換으로 肥料工業을 약하게 만들었는가? 또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條件에서 競爭하기에 充分할만큼 適合한가?

이에 대해서 몇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ERT와 Cros社는 過去 數年동안 損失을 경험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最近 肥料分野에서 收益을 올렸다고 생각되고 있다. ERT의 負債는 인상적인 經營으로 인하여 實質的으로 減少되었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의 轉換은 낮아진 輸入原料價格과 Spain에서의 높은 公式的인 販賣價格 維持가 貿易收益을 높인것과 結合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短期的이기 보다는 長期的으로 계속될 것같지 않은 結合이다.

再建計劃의 가정중 하나는 일단 제일 높은 生產費用의 生產業者가 소멸되어 왔으며 Spain工業이 이전보다 훨 많은 經營實績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즉 主要 Spain生產業者들은 國內市場을 계속 支配할 것이며 輸入製品의 침투가 最少化 될것이다.

지나간 해의 成果는 이같은 가정을 약화시켰다. 最近 工場이 폐쇄된 뒤에 조차도 나머지 工場의 收益性과 稼動率을 위협함이 없이 窒素質 肥料 收支에서 增加된 輸入量을 적응시킬만한 여지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EEC에 加入한 後 즉각 數個月동안 尿素輸入이 始作되었을때 ERT나 Enfersa로 부터 유입을 저지시킬 措置에 대하여 긴박한 要請이 있었다.

1986年 첫 5個月동안에 37,000 N M/T의 尿素를 輸入했는데 大部分 Italy나 Netherlands로 부터 들여왔다.

1985年 같은 期間동안에는 230NM/T만이 輸入되었으며 大部分 工業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約25% 割引販賣로 輸入肥料는 Spain의 모든 窒素質 肥料의 公式的인 價格構造를 弱化시키기 始作했다.

輸入物量이 年間200,000 M/T에 接近할 수 있다는 理由때문에 再建計劃의 成功을 위태롭게 하면서 Spain은 EEC國家로 부터의 尿素輸入에 가해진 制限때문에 EEC委員會에서 成功的으로 適應했다.

이 物量은 最高 150,000 M/T (69,000 N屯)으로 定했으며 期間은 1986年6月～1987月12月까지였다. Spain政府는 結果的으로 非EEC

會員國家로 부터의 尿素輸入을 50,000 M/T (23,000 N屯)으로 制限했다.

再建計劃이 順調롭게 진척되고 있는 反面에 委員會가 Spain 內需市場에 對한 安定度를 기꺼이 마련할지도 모르며 輸入抑制의 모호한 擴大를 그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Spain: Exports of Nitrogen Fertilizers by Country 1985/86
(thousand tonnes N)

West Germany	16.6
France	9.1
Ireland	15.1
Netherlands	19.6
Other Western Europe	9.3
Other	35.4
World Total	**105.1**

1986年 初半에 尿素輸入은 比較的 低廉한 費用의 北西유럽 生產者들이 大規模 Spain市場에 接近하여 점차 要求하여 成功的으로 達成함에 따라 어느 정도 豫想된 일인지도 모른다.

Spain은 장기간에 걸쳐 東歐尿素輸入에서 면제받을것 같지는 않다

追加로 過剩의 生產能力을 포기함은 물론 이같은 要因들은 모든 窒素質 肥料販賣價格을 EEC基準으로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게 될것이며 Spain生產業者들의 貿易마진을 침해할 것이다.

이는 Spain의 窒素質 單肥 輸出 效果를 갖게 할지도 모르며 最近 年度(1985/86年)에는 100,000Nt/a의 주문을 받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유럽국가들이다.

이것은 적어도 증가되는 變動費를 커버하기만 하면 되는 輸出物量은 남겨두고 國內販賣에서 생기는 收益에서 그들의 고정費用의 기금을 마련할 能力이 있는 狀態에서 競爭準備金이 있는 輸出業者들에 限하는 경우가 될것이다.

만일 國內市場에서 정말로 收益이 침식을 당한다면 지원을 받고

있는 貿易과 生産能力은 위태롭게 될것이다.

다른 영향도 역시 적당할지 모른다.

암모니아 生産業者들은 현재 원자재에 대한 政府補助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들 補助金의 장래는 Spain납세자들에게 상당한 財政的 負擔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조만간 EEC로부터 政治的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豫想할수가 있다. 原料를 개스로 전환시켜왔던 암모니아工場의 競爭力도 만일 그들의 원자재에 대해 온전한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면 의심스러운 것이 될것이다.

Spain에서의 암모니아 生産을 위한 보장된 장래는 그래서 저렴한 原料購入에 決定될것 같다. Spain은 1984年에 政府의 石油 및 개스 유틸리티인 Hispanoil이 Pyrenees 南部 Serrablo 油田에서 1.5百萬㎥/d의 生産能力으로 生産하기 始作했다. 지난해는 Bilbao 沿岸의 Gavtota 油田에서 4百萬㎥/d의 生産能力으로 稼動을 개시했다. 이 두油田의 總供給量은 개스로 1,730百萬㎥/a이며 현재 Spain의 개스所要量의 약 3/4를 供給하고 있다.

그러나 Spain개스工業의 問題는 1990年까지 해마다 Libya LNG 1,000百萬㎥는 물론 Algeria LNG 1,500百萬㎥/a(2,002年에 가서 3,800百萬㎥/a)을 購買하는 것이다.

비교적 價格이 비싼 LNG輸入의 必要性은 저렴한 費用의 Serrablo와 Gaviota에서의 國內生産이 減縮되고 있음을 뜻한다. 비록 Algeria LNG價格이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引下되었다고는 하지만 EEC나라에서 쓰고 있는 價格보다 높으며 또한 北아프리카, 中東, 東歐圈에 있는 암모니아 生産業者들의 표준가격보다도 상당히 높다. 이것이 政府의 개스販賣會社인

Enagas가 Spain암모니아 生產業者들에게 장래 그들의 主要 競爭國이될 그런 나라에서 받는것과 비교될 수 있는 價格으로 供給할 수 있는 범위를 制限하고 있다. 그래서 Spain肥料工業이 再建 過程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에 國內市場에서의 분명히 피할수 없는, 증가되고 있는 輸入品의 침투와 Spain의 암모니아 生產의 장기적인 競爭力에 관한 문제는 再建過程에서 完成되려면 아직 멀다는 結論에 닿고 있다.

그러나 Spain 市場이 모든面에서 어두운 것은 아니다.

肥料消費 比率은 EEC에 加入한 이후 增加되었으며 더욱 높은 農家 輸入때문에 계속 增加될 것이다.

만일 國內 肥料價格이 關稅 障壁이 除去됨에 따라 더욱 낮아질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製造施設을 開發할 수 있는 生產業者들이나 또는 輸入製品에 대해 Logistical한 利點을 안고 있는 生產業者들에게 機回를 남겨주겠지만, Spain肥料工業의 合理化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根本的인 問題가 경시되어서는 않된다.

가정에는 소비절약 기업에는 원가절감